

# “김천 돌풍 뚫고 연패 끊어라”



광주FC 가브리엘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0대2로 뒤진 후반 21분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광주FC, 내일 원정 김천상무전

### 빅틀·가브리엘 새 공격 옵션 장착 총력승부 '창과 창' 맞대결...화끈한 다득점 승부 예고

K리그1 광주FC가 김천상무와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 광주는 6일 오후 4시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와 K리그1 2024 6R 경기를 치른다. 지난 5R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며 3연패에 빠진 광주가 현재 리그 2위 김천상무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인천전 후반에 투입된 빅틀과 가브리엘 브라질 듀

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장신 공격수 빅틀이 헤딩 경합으로 떨궈준 '세컨볼'을 가브리엘이 강력한 슈팅으로 해결하는 공격 루트가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이정호 감독은 경기 직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빅틀에 대해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껏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빛고을 메시' 이희균의 활약

도 기대된다. 매 경기 빠른 발을 앞세운 전진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결정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후반 교체 출전한 지난 인천전에선 단숨에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슈퍼크랙'의 역할을 다했다. 데뷔 경기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문민서와 공백을 깨고 지난 경기부터 출전하며 견재함을 보여준 하승윤도 호시탐탐 상대 골문을 노린다. 벌써 시즌 3승을 챙기며 선두권 경쟁에 가세한 김천은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광주에 맞붙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천 공격의 핵심은 김현욱이다. 김현욱은 울산, 전북, 수원FC 등 강팀을 상대로 총 4골을 기록하

며 득점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4라운드 수원FC와의 대결에서 멀티 골을 작렬한 이종민도 요주의 대상이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김천은 3백, 4백, 5백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변칙 수비 전술로 상대 공격을 틀어막는다. 창과 창이 맞붙는 화끈한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양 팀의 대결이다. 이정호 감독 부임 후 첫 3연패로 리그 7위까지 떨어진 광주FC가 지난 경기에서 대량 실점으로 무너진 김천상무를 희생양 삼아 다시 한번 상위권에 오를 수 있을지 정효철의 부활을 기다리는 K리그 팬들의 이목이 김천에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기자

# 은퇴냐, 1년 더 뛰냐 또 기로에 선 김연경

## 6월 국가대표 은퇴 이벤트 경기 출전

'배구여제' 김연경(36)이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주)라이언엡은 4일 "김연경이 6월8-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벤트 경기 '김연경 초청 KYK 인비테이션 2024'에 출전한다"며 "한국 여자배구의 황금기를 이끈 국내 선수들과 전·현직 세계스타플레이어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친 뒤 태극마크를 반납했고, 흥국생명 소속으로 V리그에서만 뛰었다. 김연경은 완전한 '선수 은퇴'도 고려하고 있다. 김연경은 2022-2023시즌이 끝난 뒤 은퇴를 고민하다 흥국생명과의 계약기간 1년, 총액 7억7천500만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은 2023-2024시즌을 끝으로 종료됐고, 김연경은 원소속팀 흥국생명이 은퇴 여부를 두고 고민할 시간을 달



흥국생명 김연경이 지난 1일 열린 V리그 챔피언결정 3차전에서 득점한 후 윌로우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VO 제공>

라고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 AI페퍼스 박사랑·박정아

# 발리볼네이션스리그 “핀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새로 지휘하는 여자 배구대표팀의 첫 승선 멤버가 확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5월 열리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 선발 명단을 4일 발표했다. 협회는 모랄레스 감독이 추천한 선수 3명 중 2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의 통합 우승에 앞장선 세트 김다인, 리베로 김연경, 미들 블로커 이다현,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윤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지원(GS칼텍스)·박사랑(AI페퍼

스)을 합쳐 세터는 3명이며 문정원(한국도로공사)이 김연경과 함께 리베로로 핀다. 이주아(흥국생명), 정호영(정관장), 최정민(IBK기업은행)이 미들 블로커로 뽑혔고, 표승주(IBK기업은행), 강소휘(GS칼텍스), 박정아(AI페퍼스), 이소영(정관장)을 아울러 아웃사이드 히터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아포짓 스파이커로는 이선우(정관장)와 김다은(흥국생명)이 낙점됐다. 대표 선수 16명은 오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여 모랄레스 신임 감독의 지휘로 훈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최가빈의 티샷. <KPGA 제공>

##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최가빈, 첫날 깜짝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년째 뛰는 최가빈이 KLPGA 투어에 국내 개막전 첫날 깜짝 선두에 나섰다.

최가빈은 4일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6타를 쳐 리더보드 맨 윗줄에 자리 잡았다.

2022년 드림투어와 KLPGA 투어를 병행하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KLPGA 투어에서 뛰기 시작한 최가빈은 아직 팬들에게는 낯선 이름.

지난해 상금랭킹 52위로 간신히 시드를 지켰고 작년 9월 KG 레이디스 오픈 공동 4위가 최고 성적이다.

지난달 시즌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나흘 내내 60대 타수를 친 끝에 7위에 올랐던 최가빈은 이날 개인 최저타수를 적어내 무명 탈출을 예고했다.

최가빈은 지금까지 KLPGA 투어에서 66타를 한번 친 적이 있을 뿐 66타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피브트 김금순이 3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강경민의 슛을 막아내고 있다. <한국현대불연맹 제공>

# 광주도시공사, “SK는 못 당해”

## 올 시즌 첫 홈경기 17대26 완패...3전 전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올 시즌 첫 홈경기에서 패배를 떠안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5차전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에게 17-26으로 완패했다. 이번 시즌 SK슈가글라이더즈에 한번도 이기지 못하고 3연패를 당한 광주도시공사는 6승 1무 12패(승점 13)로 승점 추이에 실패하면서 6위에 머물렀다. 전반 초반은 팽팽했다. 광주도시공사

가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면서 1골씩 주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좋은 공격으로 SK슈가글라이더즈의 수비를 뚫고도 골키퍼 이민지 선방에 막히면서 따라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전반은 서로 실책을 주고 받으며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다. 광주도시공사가 박소은 골키퍼의 선방과 김금순의 활약으로 10대10 동점을 만들었으나, SK슈가글라이더즈의 과속공세에 밀리며 11대12로 전반

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잇단 실책과 회심의 공격이 골키퍼 이민지의 연이은 선방에 막히며 12대18로 점수차가 벌어졌다. 마음이 급해진 광주도시공사 공격에서 매끄럽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SK슈가글라이더즈는 기회만 있으면 빠른 속도로 골을 넣으며 달아났다. 추격 의지를 상실한 광주도시공사는 결국 17대26으로 패했고, 승리한 SK슈가글라이더즈는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다. /박희중기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 <대한축구협회 제공>

# “목표는 U-23 아시안컵 우승”

## 황선홍호 선수단 투표...“가장 이기고 싶은 나라는 일본”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린 황선홍호 선수들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서 우승만을 버리고 있다. 4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챔피언십 출전자와 U-23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오른 선수들 가운데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전원이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 성적으로 꼽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WAFF 챔피언십에 출전해 실전 경험을 쌓으며 우승까지 일했다. 오는 15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는 파

리 올림픽 아시아예선을 겸한다. 3위 안에 들어야 본선에 직행하고, 4위가 되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소속 국가와 플레이오프로 파리행을 타진해야 한다. 3위 안에만 든다면 자력으로 한국 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지만 선수들은 그보다 높은 '우승'을 목표로 잡았다.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를 골라달라는 요청에도 만장일치가 나왔다. 응답자 전원이 일본을 꼽았다. 한국은 2022년 열린 직전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한 바 있다. /연합뉴스